

사고현장 대원 투입 못하는 119센터 많다

인명구조사 자격 갖춘 소방대원 없는 119센터 10곳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센터 신속한 인명구조 불가 도소방본부 도내 2개 센터서 구조진압대 시범 운영

제주 지역에서 소방서와 거리가 20km 이상 떨어진 이른바 '월거리 119센터·지역센터' 6곳 중 2곳에 인명구조사 자격을 갖춘 소방대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구조사는 건물 붕괴, 매몰, 화학물질 유출 사고 또는 수난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인명 수색이 가능한 특화된 전문 구조대원을 말한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24개 119센터와 4개 지역센터가 있다. 119안전센터는 경찰 조직으로 따지면 지구대·파출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난·화재 현장에서 최일선을 담당하는 소방기관을, 지역센터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소

방기관을 뜻한다.

이들 28개 119센터·지역센터에는 119구조대가 없다. 119구조대는 관할 구역이 넓은 도내 4개 소방서만 운영하는 구조 전담 조직으로, 인명구조사 자격을 갖춘 소방대원이 배치돼 있다.

단 119센터·지역센터라도 소속 대원 중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대원이 있다면 119구조대가 도착하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건물 붕괴, 매몰 사고 현장에 해당 대원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

28개 119센터·지역센터 중 인명구조사 소방대원을 확보한 곳은 18곳이다. 곳에 따라 많게는 7명에서 적

게는 1명까지 배치돼 있지만 대다수가 3명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10곳은 관할 구역에서 건물 붕괴, 매몰 사고, 방사능 피폭 사고가 발생해도 인명구조사 소방대원이 없어 119구조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소방서와 거리가 가깝다면 다행이지만 거리가 20km 이상 떨어진 곳은 119구조대를 지원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적절한 대처가 힘들다.

대정119센터가 대표적이다. 인명구조사 대원이 없는 대정119센터는 서부소방서와 26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119구조대가 대정 관할 지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2분이다.

추자도도 마찬가지다. 부속섬이다 보니 소방서와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인명구조사 대원은 없다. 소방청이 정한 원거리 '20km' 기준은 아니지만 소방서와 19km 떨어져 119구조

대가 도착하는데 23분이 걸리는 김녕지역센터에도 인명구조사 대원이 없다.

제주도소방본부는 이런 인명구조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구조진압대(Res-Pump)를 2곳 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진압대는 처음 도입되는 조직으로 119구조대처럼 인명구조사 대원 등 전담 구조 인력과 위해 중량물 유압 작업장비 등 필수구조장비 14종을 보유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만간 각급 소방서의 의견을 받아 구조진압대를 시범 운영할 2곳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인명구조사 대원 확보 수준 뿐만 아니라 구조 수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될 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구좌읍 중달리 해변에 물려든 구멍갈파래.

사진=녹색연합 제공

구멍갈파래 번식 원인은 '양식장 배출수' 녹색연합 "육상양식장 있는 해변 87% 갈파래 급증"

심한 악취를 유발하며 제주의 해안 경관을 훼손하는 구멍갈파래의 번식 원인이 육상양식장이 지목됐다.

녹색연합은 "양식장 배출수가 구멍갈파래 번식 원인"이라며 "양식장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녹색연합이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연안 전체의 육상 양식장과 해변 등 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8%에 달하는 63곳에서 구멍갈파래가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구멍갈파래가 유입된 곳 중 특히 상황이 심각했던 지역은 육상 양식장이 밀집된 동부 해안인 성산·구좌·조천 지역과 서부 해안인 환경·한림 해변 등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증, 김녕, 이호, 괄지, 신흥, 함덕 등 제주도 지역 대부분 해수욕

장에서도 구멍갈파래가 번식하고 있었다.

대규모 녹조류는 연안에 흔하게 분포하는 파래류가 과도한 영양 물질을 흡수한 뒤 과잉 성장해 발생한다. 보통 연안의 바위를 뒤덮거나 조류에 떠밀려 해안에 띠 모양으로 쌓이는데, 심한 악취는 물론 영양염류 흡수율이 높아 다른 해조류를 걸핍시켜 저서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녹색연합은 "구멍갈파래가 발견된 지점은 성산 신양, 조천 신흥처럼 인근에 양식장이 위치하고 조류 흐름이 정체된 만(灣) 형태의 지형이었다는 특징을 보였다"면서 "제주도정은 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오염 부하량 관리, 배출수 기준 항목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민식이법' 첫 적용 60대 운전자 벌금형

35~36km로 운전하다 사고 재판부 "합의한 점 등 고려"

제주지역에서 민식이법으로 처벌된 첫 사례가 나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쯤

차를 몰고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관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km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B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60대 포구서 수영하다 숨져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수영하던 마을 주민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6분쯤 제주도 삼양3동 포구에서 수영 중이던 강모(63)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심정지 상태인 강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숨졌다. 강다혜기자



장마 피해 극심한 녹두밭 9일 제주도 구좌읍 한 녹두밭이 장마로 인해 썩을 피우지 못하자 농민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위반 해명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공사 재개로 과대료를 물게 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9일 제차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

료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5월 27일 비자림로의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은 이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솥방망이 처벌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해 "편리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공존 방안이 분명 존재함에도, 영터리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강행의 빌미만 만들고 있다"며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도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앵무묵,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2021년 식재용 예약

* 유라조생	1년생
* 카라향	1,3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레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